

혼자 사는여자 <강한여자, 약한 남자 -3 편>

결혼과 출산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유능한 젊은 여성 입장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가진 현대 여성의 입장에서는 다를 것이다.

선진 사회의 문제중에 가장 심각한 과제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다. 그 밑바탕에는 결혼이 늦어지고 미혼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이혼률은 급증하는 것이다. 물론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고령화 되는 인구 증가보다 신생아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심각하다. 신경계의 불안정한 국가들은 노인들의 사회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 반면에 현대의 결혼적령기의 여자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 출산하기를 꺼린다. 왜 그럴까? 만약 당신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임금의 미혼여성이라면 결혼해서 자녀를 갖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신경계의 전문직 기술은 급속도로 변화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시간단위로 변한다. 급변하는 변화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올인해야한다. 보장되지 않는 불안정한 미래 때문이다. 변화의 속도만큼이나 도태의 속도도 빠르다. 그 경쟁에서 밀려나면 한단계 낮은 자리로 옮기는 것(Down Shift)이 아니라 제거(Cut Off)되는 것이다. 일예로 젊은이들에게 각광받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40 세를 넘기면 퇴물로 눈치를 보아야 한다. 전문 직장인들의 회의는 시도 때도 없이 열린다. 각종회의나 모임에 빠지지 못하는 이유는 조금만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거나 방심해도 그 대열에서 낙오되고 결국 도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갓난아기를 키우려고 하면 적어도 3,4 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첨단분야에서 3 년이라는 세월은 강산이 세번 변하는 것과 같다. 즉 3 년이 30 년인 것이다. 그렇게 엄청나게(?) 긴 세월을 원다음에 어느 조직에서 받아줄 것이며, 이미 엄청난 진화과정을 거친 그 조직에 다시 합류할 실력은 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리고 조직원들이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중간 이탈자>들은 무슨 이유이든지간에 <자연도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 여성이 아이를 둘씩이나 낳아서 기른다면 그 여자는 그 바닥에서는 까마득히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기른 죄로, 남편 뒷바라지하고 가정을 지킨 죄로, 임신을 여자만 하여야 한다는 조물주의 실수(?)로 여자는 자신을 위한 성공의 대열에서 자동 탈락하는 것이다. 아내보다 학력도 낮고, 직급도 낮고, 업무 수행능력도 떨어지고, 연봉도 낮은,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남편은 계속 회사를 다녔다는 공로로 승승장구 하고 집에서도 큰 소리친다. 아이 낳아서 기른 죄밖에 없는 여자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회에서 퇴출이라니... 어느 여자가 결혼하고 애를 낳겠는가? 그것도 둘씩이나?..

미국은 배후자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수가 30 년전에는 15%에서 지금은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여자들은 점점 고소득 직장인이 늘어나는 반면, 남성들은 경제적 기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30 년전의 여자들은 40% 이상이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지금은 10%도 교사를 원하지 않는다. 교사보다 더 많은 수입을 보장받는 직업이 많기 때문이다. 여성 대졸자가 남성보다 더 많으며 급격히 증가한다. 여성 대졸자의 75% 이상이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다. 현대인들의 목표는 74% 이상이 <인생의 가치로운 삶>이 아니라, <경제적 풍요로움>을 위해 산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여유있게 사는 것이 현대인의 꿈이자 목표이다.

DINS (double income, no sex)라는 용어를 아는가?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뜻한다. 현대의 부부들은 집에 와서 잠자는 것 이외에는 일체 다른 것을 못할 정도로 항상 피곤에 절어 있다는 것이다. 이민 사회의 여러분들은 어떠할까? 여담이지만 전문 분야에서 근무할수록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일년에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성관계를 못가지는 부부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불륜과 성문화가 발달하는 것일까? 그런 반면에 <홍부>가 그 가난속에서도 자식들을 주렁주렁 낳았다는 사실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는 별로 없었다는 반증이다. 미국의 자녀 있는 부부는 70 년대의 45%에서 1998 년에는 26%를 감소하고 지금은 더 떨어졌다. 즉 결혼하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다. 그 원인은 크게 세가지다. 아이 한명을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반면에, 그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그 아이 한명으로 인해 엄마가 사회적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남자들의 수입이 불안하고 여자 수입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 없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16%에서 32%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미혼여성 출산률이 1990 년대에 이미 전체 출산률중 32%를 넘어섰다. 신경제의 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예방책을 가지고 있다. <계속 있으려면 돈을 내라.>라는 규칙, 즉 ‘가계 지출에 공헌을 하면 같이 살고 공헌을 하지 못하면 나가라’는 규칙이다. 문제는 신경제에서는 이 규칙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신경제 여성들은 결혼하면 남자가 상당한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더 이상 경제적 안정을 위해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결혼하면 자신의 개인적 안정상태가 위협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남편의 경제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출산과 육아는 물론, 함께 살지도 않겠다는 선포이다. 여성들은 여차하면 혼자 살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불쌍한 남성동포들이여, 자력갱생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토사구팽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